The background image shows a close-up of a medical device, likely an ECG monitor. On the left, a digital display shows 'ST' and '1.39'. Below the display, there are buttons and a label 'SpO2'. A roll of white paper with a red grid is being printed, showing a blue line representing an ECG trace. The paper has some faint text and numbers on it, including '240', '210', '180', '150', and '120'. A semi-transparent white box is overlaid on the center of the image, containing the section header text.

#### IV. 기업별 SDGs 우수 이행 사례

##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 기업소개

존슨앤존슨은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제약업체이자 소비자 제조업체로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료가기 및 진단 장비를 생산한다. 모든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60개가 넘는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SDGs 로드맵

존슨앤존슨은 2016년 9월 유엔 총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인류 건강의 진전을 위한 로드맵'(A Roadmap to Advance Human Health) 행사에서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SDGs 달성을 위해 아래 5개의 부문에서 해당기업이 향후 5년 간 이행할 상세 공약을 발표했다.

- 세계 질병문제 -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의료 솔루션을 기반으로 5년간 약 1억7천5백만명에 대한 질병 예방, 통제 및 퇴치 노력
- 의료인력 -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5년 간 65만명에 대한 의료 교육 제공
- 필수적 수술 - 생명을 구하고 장애를 방지하며, 경제성장 촉진과 사회적 소외 예방을 목표로 5년 간 5천만명에 대한 안전하고 시의 적절한 필수적 수술 제공
- 여성 및 아동 건강 - 5년간 6천만명의 여성과 아동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원
- 환경 보건 -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존슨앤존슨의 환경 및 공기 청결 활동을 통해 전세계 30개 도시, 10억명 인구의 건강 향상 약속



존슨앤존슨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안센 GPH (Janssen Global Public Health)를 설립함. 안센 GPH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와 결핵 치료제인 '베다퀼린'을 130개 이상의 저소득 국가, 중산층 국가의 환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결핵퇴치파트너십(Stop TB Partnership's Global Drug Facility) 및 미국국제개발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과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와 '베다퀼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협업함. 또한, 안센 GPH는 소아와 성인의 약물 저항성 결핵 치료의 연구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하버드보건대학원과 협력하고 있음.

HIV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안센 GPH는 성관계를 통한 여성의 HIV의 감염을 예방하는 '다비피린'의 전세계적인 개발과 상업화를 위해 에이즈 퇴치를 위한 비영리 기관 IPM(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Microbicides)과의 협력을 확대함. 또한, 안센 GPH는 자사의 캠페인을 통해 HIV 치료 경험이 있는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한 국가 수준의 역량, 지식과 경험을 강화했으며, 소아용 제재를 포함한 HIV 치료제인 '프레지스타'의 비용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과 최저개발국에서 약 20% 감소시킴.





존슨앤존슨은 모성을 위한 모바일 연맹 (Mobile Alliance for Maternal Action), USAID, UN, BabyCenter(임신출산육아 정보 사이트), ARMMAN(뭄바이 소재 NGO)과의 모바일 건강 파트너십인 'mMitra'를 맺고, 1주에 2번씩 임신부와 신생아를 위한 예방 접종 및 치료에 관한 음성 메시지를 전송. 메시지는 휴대전화를 통해 선택된 언어와 선호 시간대에 직접 전달되며, 임신 주기별 또는 신생아의 발달단계에 맞춰 정보를 제공함. 존슨앤존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소비자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자사가 설정한 건강한 미래 목표를 달성함.



존슨앤존슨은 2009년부터 자사의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환경 영향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에 '어스워드 (Earthwards)'라는 자체 인증을 부여함. 어스워드는 원료, 포장재, 에너지, 쓰레기, 수자원, 사회, 혁신 등 7가지 핵심 분야의 개선을 목표로 제품의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며, 제품 지속가능성 향상을 파악하고 구현하기 위해 제품의 생애주기를 고려함. 제품이 7가지 영역에서 최소한 3가지 중요한 개선을 달성하거나 수명주기 평가 영역에서 적어도 1가지 개선 사항을 달성하면 어스워드 인증을 받음. 인증을 받은 제품의 예로 밴드에이드(Band-Aid)가 있으며, 원료 사용, 29% 감소, 포장 58% 감소, 운송 효율성 60% 증가, 폐기물 59% 감소 등을 달성함. 제품 개발과정에 있어 존슨앤존슨은 친환경 화학, 영향 물질 제거 및 보다 지속가능한 포장 해결책에 대한 기회를 모색하며, 제품 수명이 끝나면 중고 장비의 재활용 및 재처리를 장려하고 있음.



존슨앤존슨은 자사의 제품이 수중환경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가이아(Global Aquatic Ingredient Assessment, GAIA) 프로토콜을 개발. GAIA는 수자원 환경, 어류,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제품의 원료를 GAIA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데, 제품에 사용된 성분의 양과 그 성분의 정도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며, 수중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점수가 낮은 제품의 경우 제형 개선을 위해 노력함.



존슨앤존슨은 2015년 예일 오픈 데이터(접근 프로젝트(Yale Open Data Access Project)와 포괄적인 협약을 맺고, 존슨앤존슨이 생산하는 의약품이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업계 최초로 새로운 산업 표준을 수립함. 존슨앤존슨은 투명성 제고와 이해 관계자와의 참여 증진에 자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사노피(Sanofi)

### 기업소개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노피(Sanofi)는 전세계 100여 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제약, 백신, 동물약품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다국적 헬스케어 기업이다.

### SDGs 로드맵

사노피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지와 함께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통한 국제적인 건강 증진이라는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혁신(innovation), △유효성(availability), △저렴한 가격(affordability), △높은 질과 환자 지원(quality care and patient support)을 경영 핵심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한 SDGs 달성 지원을 약속했다.

2015년 유엔 민간 부문 포럼에서 채택된 35건의 기업 지지선언 중 2건은 사노피로부터 제안 되었다. 첫번째는 사노피 희망 재단(Sanofi Espoir Foundation)에서 제시한 '내 아이는 소중하다(My Child Matters)'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므로 중·저소득국가 아동들의 암 예방 및 치료를 약속한다. 두번째는 사노피파스퇴르와 게이츠 재단에서 공동으로 제시한 프로그램이므로 세계 73개의 저소득국가들에 대한 IPV백신 지원을 통해 2018년까지 소아마비를 없애겠다는 약속이다.



2015년 사노피는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선도하며 WTO, 민간부문, 정부, 유엔, 산업부문, 학계와 함께 협업하는 이니셔티브인 '비 헬스 비 모바일(Be He@lthy Be Mobile)'에 가입해 비전염성 감염병을 위한 협력을 이어감. 이 프로그램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전세계 87개 이상의 국가에서 비전염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구체적으로, 모바일 기술을 통해 당뇨병 예방법, 다양한 인구 집단을 위한 당뇨병 지원 등 필요한 방안을 제공함. 세네갈에서는 SMS 메시지를 통해 일반 시민과 당뇨병에 걸린 환자, 의료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2016년, 약 5만명의 당뇨환자들이 혈당수치의 위험한 변동을 사전에 감지해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SMS 정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함.

사노피 인도법인(Sanofi India Limited)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슐린제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도의 글로벌 기업이 제조한 최초의 재사용 가능 인슐린 펜을 출시함. 올스타(AllStar)는 처음 인슐린을 복용하기 시작한 환자는 물론 사노피의 인슐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도 사용 가능함. 인도에서 출시된 이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레이시아, 태국, 이집트 등 여러 신흥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



사노피 아벤티스 모로코 ('Sanofi-Aventis Marocco')는 모로코 보건당국과 사노피의 공급망 관리 전문성 공약을 위한 협약을 체결. 이 협약을 통해 사노피는 제약 산업 분야와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 엔지니어 및 직원 양성을 지원함. 훈련은 적절한 유통 방안, 위생, 안전, 환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 협약을 통해 모로코의 병원 시스템 부족, 현지 제품의 부적절한 보관, 재고 관리의 부족,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약품 관리 수단의 부재 등과 같은 모로코 현지 공급망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사노피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활성화시켜 빈민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직 '플래닛 파이낸스 (PlaNet Finance)와 함께 마다가스카르와 베냉 지역에서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함. 마다가스카르 주민들은 대부분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며, 주민들의 낮은 급여로는 의료비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사노피는 마다가스카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다가스카르 6개 지역에 소규모 의료보험 플랫폼을 설립하는 지나(ZINA)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10,000명의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함.



사노피는 산업 및 연구 개발 현장의 CO2배출량을 2020년까지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15.8% 감축을 달성함. 이를 위해 사노피는 에너지 부문 리더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도에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실행했으며, 연료 소비 및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운전 방식을 지향하는 친환경 차량 정책을 지속함. 또한 사노피는 해상 운송 방식을 활용하여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의약품 운송으로 인한 CO2 배출량을 24% 감소시켰는데, 타 헬스케어 기업들이 해상운송을 평균 28% 정도만 운영하는데 반해, 사노피는 의약품의 국제 운송도 86% 해상운송으로 전환함.



사노피는 사용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을 환자에게서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폐기 방법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지원. 이 프로그램은 지역 생태계 보호와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약품을 화장실에 폐기하여 수자원 오염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필리핀, 사우디 아라비아,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15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음. 콜롬비아에서는 파란점이라는 뜻의 뿐또 아술 (Punto Azul) 프로그램을 통해 콜롬비아 전체 국민의 48%가 거주하는 23개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수집 거점을 마련함. 이 프로그램은 의약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등이 자금을 지원하며 2010년에 콜롬비아 기업 협회 (ANDI)에 의해 발족됨.



2012년 1월 사노피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한 약물 저항성을 발견하고 연구하며 데이터 공유를 추구하는 협력플랫폼, WWARN (Worldwide Antimalarial Resistance Network)에 가입함. 사노피는 이 협약을 통해 국경 없는 의사회가 2003년 저개발 국가의 질병퇴치를 목적으로 세운 국제기구, DNDi(Drugs for Neglected Diseases initiatives)와 협업하여 얻은 말라리아 약물 저항성 관련 정보를 WWARN의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함. 2000년 이후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25% 이상 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는 전세계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아르테미신 치료법(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한 약물 저항성으로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해 관계자들이 약물 저항성 확산을 모니터링하고 대처하기 위해 협업하고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요구됨. 사노피는 2013년 말라리아 예방약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를 학계와 공유하기 위해 아르테미신 치료법 컨소시엄(ACT Consortium)을 비롯해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함.

## 일라이 릴리(Eli Lilly)

### 기업소개

항우울제인 프로작으로 유명한 미국의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1876년에 설립된 다국적 제약회사로 120개국에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55개 이상의 국가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SDGs 로드맵

일라이 릴리는 2016년 '30x30'이라는 이름의 목표를 발표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지와 함께 2030년까지 투자, 약품, 의료 서비스 형식으로 매년 3천만명의 저소득층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일라이 릴리는 앞으로 5년 동안 릴리 세계건강재단(Lily Global Health Foundation)을 통해 브라질, 중국, 인도, 케냐, 멕시코, 러시아, 남아공에 사는 저소득층의 당뇨병, 암, 결핵 치료를 위해 미화 9천만 달러를 지원한다.

'30x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라이릴리는 △ 지역 의료 시스템 강화, △ 환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신약 개발에 대한 협력, △ 자원 제한된 환경에 있는 환자를 위한 약품 포장 및 약품 전달 방식 개발, △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가격 정책을 포함한 신규 사업 모델개발 이라는 5가지 방안을 이행하고 있다.



일라이 릴리는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상세한 환경 평가 수행 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인슐린 제품의 주성분(API)를 제조하는 과정을 간소화시켜 용수 사용량 및 공정 폐기물 발생량을 생산 단위당 30 % 감소시킴. 2015년 푸에르토리코 공장에서도 유사한 전환을 실시하여 자사 공장 프로세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킴.



일라이 릴리의 동물용 의약품 자회사인 엘랑코(Elanco)는 2017년까지 100개의 지역사회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50개 이상의 지역사회에서 '브레이크 더 사이클(break the cycle)' 프로그램을 실행함. 엘랑코는 전염병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한편, 가축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고,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며, 오염된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을 중식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농업종사자와 생산자들이 더 많은 양의 식량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일라이 릴리는 에너지원을 다각화하고 온실가스 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생 에너지를 활용함. 지역 시설로부터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직간접적으로 구매할 뿐 아니라, 직접 전력을 생산하기도 하는데, 전세계 5개 시설에서 태양 전지판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함. 2014년 미국 뉴저지에서 완공한 9.95 메가와트 태양광 시스템은 40에이커가 넘는 면적으로, 이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회사가 보유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중 가장 큰 규모임. 이 시스템은 2015년에 1320만kWh의 전력을 생산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력량의 31%를 총당함.



일라이 릴리는 2015년에 2020년까지 2014년 대비, 폐수 절대 배출량을 15%까지 감소시키는 새로운 수질 목표를 발표. 이 목표는 수자원이 지역 사회, 규제 기관 및 투자자에게 점점 더 중요한 이슈임을 반영한 것으로, 일라이 릴리는 오염원을 상당 부분 줄이기 위해서 세정제를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무인합성 성분의 대체물로 교체할 예정. 일라이 릴리의 기술팀은 기존 청소 및 공정 과정을 평가하고 있으며 전세계 주요 지역에 평가 결과를 적용할 예정임.



일라이 릴리는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명 윤리 지침이 산업 후원자가 아닌 임상 시험자와 윤리 검토위원회의 책임에 집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인간 생체 의학 연구를 위한 생명윤리 프레임워크(Bioethics Framework)를 제정함. 일라이 릴리의 생명윤리 프로그램(Bioethics Program)은 최고 의료 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인 조직체로, 네 가지 기본 원칙 (인간존중, 자선, 무해성의 원칙, 정의)과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13가지 필수 요소로 구성됨.

2015년 일라이 릴리는 의료와 제약 업계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 논의를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프레임워크의 발전과 수행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 이 밖에도 줄기세포 연구, 소아과 의학, 다국적 임상 실험과 같은 생명 윤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이드들을 개발하고 있음.

##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

### 기업소개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은 연구개발 중심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다. GSK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삶을 살 수 있도록 (Do more, Feel better and Live longer) 돕는 것'을 사명으로 혁신적인 치료제 및 백신, 컨슈머 헬스케어 제품을 연구개발 및 제공하고 있다.

### SDGs 로드맵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GSK)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목표 달성을 위한 23개의 '책임 있는 경영 약속'(Responsible Business Commitments, RBC)을 추진하고 있다. RBC는 SDGs의 목표들을 기업 역량에 내재화한 것으로 제약회사인 GSK는 '국제 건강 증진'이라는 개발 아젠다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당사는 RBC 진행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RBC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6년 보고서에는 △ 반부패,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의료 제품 혁신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손꼽았다.

GSK는 2009년부터 7년 동안 2천1백 영국 파운드를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의료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였으며, 30년 간 말라리아와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연구를 진행 해왔다. 또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및 여러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국가 위주의 계획 및 실행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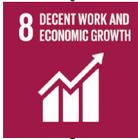
GSK는 알츠하이머에서 항생제까지 중요한 과학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 축적된 데이터 및 자료, 2) 지적 재산, 3) 전문성, 절차, 인프라 공유를 위한 파트너십을 활용해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 예를 들어, GSK는 전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인 말라리아와 결핵에 대한 활동의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2백만 가지가 넘는 도서 자료를 선별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 관련 단체와 협업함. 스페인 트레스칸토스 지역의 개방형 연구실에서 GSK 과학자들과 함께 일하는 외부 전문가들은 GSK의 도서 및 자료,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질병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



GSK는 각 국가별 경제적 상황 및 요인을 고려한 가격 정책 모델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국가의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에 기반한 적절한 가격 책정해 자사의 상품이 전세계적으로 접근가능 하도록 함. 또한, GSK는 최저개발국에게 제공하는 자사의 특허 약품과 백신 가격을 선진국의 25%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음.



GSK는 아프리카 지역 25개의 학술 단체 및 프로그램을 구축해 지역의 기술을 바탕으로 조제학, 보건 정책 및 보건 서비스 등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함. 이를 통해 GSK는 의료분야의 활발한 경제적 발전과 미래의 투자 확보를 지원하며, 2020년까지 지역 연구와 제조 및 의료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



GSK는 개발도상국의 현지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지 생산 역량강화를 위한 합작투자 및 기술 이전 계약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직접 백신과 의약품을 연구하고 현지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함. 예를 들어, GSK는 브라질의 공중 보건의 선도 연구 기관인 오스바우두 크루스 의료재단(Fiocruz) 과 협력하여 브라질 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백신들과 Dengue열 백신을 생산함. 인도에서는 바이오로지컬 E(Biological E) 와 합작 투자를 시작하고 소아마비와 Biological E의 5종 질환 예방 백신을 결합한 6종 질환 예방 백신 개발함. 아프리카에서는 지역 의약품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케냐와 나이지리아의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그 밖에 신규 공장 건설에 1억 파운드를 투자함.



GSK의 탄소 배출량의 약 40%는 공급망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GSK는 집단적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력함. 2014년 생산과 R&D 에 사용되는 원료에 10억 파운드 이상을 쓰는 원료 공급업체 200곳에서 탄소, 용수 및 폐기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500개 이상의 공급업체들에게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환경 영향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공유를 요청함. 이를 위해 공급업체가 서로 협력하고 자원활용 개선, 물절약,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비공개 온라인포럼인 'GSK 공급거래소(GSK Supplier Exchange)'를 운영하고 있음.

##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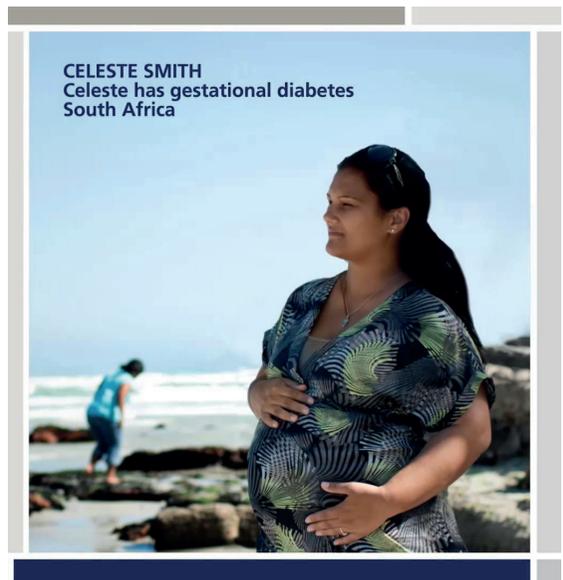
### 기업소개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AS)는 당뇨 관리의 선두주자로, 90년에 걸쳐 혁신과 리더십을 가진 글로벌 의료전문 회사다.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는 전세계 77개국, 약 4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165개국 이상의 나라에 자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 SDGs 로드맵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와 비감염성 질환과 같은 자사의 전문 분야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업 전략의 우선순위와 연계하였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신생아, 유아,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 종식을 목표로 하는 SDGs 목표 3.2를 위해,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병을 가진 임산부들을 위한 치료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 여성 및 아동 건강 증진(Goal 3, Target 3.4), △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Goal 3, Target 3.8), △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개발(Goal 11),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방지(Goal 13), △ 투명성 강화(Goal 16), △ 공공·민간부문 협력(Goal 17)에 자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의 주요 제품인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포도당은 주로 물 발자국(Water footprint) 지표가 높은 경작지에서 자란 옥수수에서 생산됨. 노보 노디스크는 국가별 농작물의 물 발자국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 포도당 생산에 영향을 미칠 소싱 위치와 지역적 물 부족문제를 파악함. 이를 통해 노보 노디스크는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공급망의 환경적 영향의 주요 지점을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 잠재적 발생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함.



노보 노디스크는 저소득국가와 중산층국가에서 근로빈곤층의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2012년, '베이스 오브 피라미드 (Base of the Pyramid)'라는 이름의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발족. 당뇨병 인지도 제고, 조기 진단, 숙련된 전문가의 양질의 보건 관리, 안정되고 저렴한 인슐린 공급, 환자 교육을 통한 자가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함. 노보 노디스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의 사업의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당뇨병 치료에 대한 측정 가능하고, 지속가능하며 수익성이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유 가치를 형성하고 있음.



노보 노디스크의 '임신 중 당뇨병 변화시키기(Changing Diabetes in Pregnancy)' 프로그램은 임신부의 건강 증진과 제 2형 당뇨병 예방을 위한 임신성 당뇨병(Gestational Diabetes, GDM) 선별 검사 및 관리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비용 효과성 증거를 제공하며, 수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9년 시작됨. 저소득 국가와 중산층 국가에서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사 제품 포함, 진단 및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뇨병 및 임신부 보건 단체와 협력. 이 프로그램은 세계산부인과학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FIGO)가 임신성 당뇨에 걸린 여성의 진단과 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세계적인 행동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함. 이 밖에도 노보 노디스크는 콜롬비아와 니카라과에서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비다 누에바(VIDA NUEVA)라는 이름의 임신성 당뇨병 진단 및 관리 프로젝트와 인도의 임신성 당뇨병 국가 가이드라인 발간을 지원하고 있음.



2014년 노보 노디스크는 도시에서 자주 발견되는 제 2형 당뇨병의 근본 원인을 찾고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파트너십 프로그램 '도시의 당뇨병 변화시키기(Cities Changing Diabetes)'를 시작함. 오늘날 전세계 4억 1천 5백만 명의 당뇨병 환자 중 65%인 약 2억 7천 만 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2040년에는 당뇨병 환자 수가 7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노보 노디스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가 당뇨병 해결책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거점이라고 믿으며, 멕시코 시티, 미국 휴스턴, 덴마크 코펜하겐, 중국 상하이, 중국 톈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캐나다 밴쿠버와 협력을 맺고 도시의 당뇨병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